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미·영 무역 합의로 활짝 웃은 증시

- 미국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나스닥 1.1% 상승
- 미·영 무역 합의로 시장 낙관론 증대
- Fed 금리 동결, 금리 인하 기대 감소

Summary

뉴욕증시는 미·영 무역 협상 타결 소식에 힘입어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함.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2% 오른 41,368.45에 장을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0.58% 상승한 5,663.94를 기록함. 나스닥 종합지수는 1.07% 올라 17,928.14로 거래를 마쳤으며, 러셀 2000 중소형주 지수는 1.85% 상승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과의 무역 합의를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힘으로 작용함.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관세를 철회하고,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면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투자심리가 개선됨. Fed는 금리를 3연속 동결하며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수 있음을 언급함. Fed의 금리 동결 소식과 더불어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미 국채 금리는 급등세를 보임. 주요 경제지표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함. 종목별로는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3.11%와 1.11% 상승함. 보잉은 영국 항공기 구매 소식에 3.34% 급등함. 비트코인도 다시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시장의 투자 심리를 자극함. 미국과 중국의 첫 무역 협상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는 중이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향후 협상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미국 주요 지수 모두 상승하며 이번 주말 예정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다우 +0.62%, 나스닥 +1.07%, S&P500 +0.58%, 러셀2000 +1.85%)

특징종목

알파벳 (+1.9%)은 최근 애플이 자사의 브라우저에 AI 검색 기능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로 주가가 불안정했었지만, 모건 스탠리가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주가가 상승함. 애플 (+0.6%)은 AI가 구글 검색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구글의 반박이 주목받으며, AI를 활용한 검색 옵션 추가 계획이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얻음. 아마존 (+1.8%)은 제프 베조스가 AI 데이터 솔루션 회사 Toloka에 투자한 소식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며 사무실 확장을 계획하는 것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 엔비디아 (+0.3%)는 트럼프 행정부의 AI 칩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칩 수출 제한 해제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테슬라 (+3.1%)는 펜션 펀드의 주식 매도에도 불구하고 수요 문제 해결 기대감과 인도 시장 확장 계획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음. 마이크로소프트 (+1.1%)는 다이내믹스 365 비즈니스 센트럴 가격 인상과 스카이프 종료 후 팀스로의 유저 이동 계획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주가를 끌어올림. 메타 (+0.2%)는 NSO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리하며 기업 이미지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

액손 엔터프라이즈 (+14%)와 이팜 시스템즈(+13%)는 각각 강력한 1분기 실적과 연간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며 주가 급등을 기록하였음. 인페이즈 에너지 (+12%)는 독일에서 태양광 시스템을 출시하며 시장 확장과 긍정적 옵션 활동이 주가를 지원함. 애플로빈 (+12%)은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와 옵션 거래가 주식 가치를 올리며 급상승함.페이컴 소프트웨어 (+9.0%)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기대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AI 통합과 국제 확장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델타 에어라인스 (+7.2%)는 새로운 계절 항공편 출시와 미국 항공 상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주가 상승을 견인했음.

반면, 일라이 릴리 (-3.3%)와 노보노디스크 (-4.0%), 머크 (-1.9%) 등 제약 업종은 의약품 관세 및 메디케어 약가 인하 추진 소식에 하락.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협정 소식이 채권, 외환 및 상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8bp 오른 4.38%로 상승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무역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위험 자산 선호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브렌트유와 WTI 원유 가격은 각각 하루 동안 3.38%, 3.81% 상승하여 63.19 달러와 60.28 달러에 거래되었음. 원유 가격 상승은 최근 무역 협정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감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분석됨. 달러 인덱스(DXY)는 하루 동안 1.03% 상승하며 100.64를 기록했으며, 이는 영국 파운드에 대한 강세와 함께 미국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음을 나타냄. 한편, 귀금속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2.09% 하락하여 3305.62달러에 거래되었고, 은 가격은 0.01% 소폭 하락하며 32.45달러에 머물렀음. 이러한 귀금속의 하락은 달러 강세 및 위험 자산 선호도가 늘면서 안전 자산의 매력에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반면에 농산물 시장에서는 대두가 0.51% 상승한 반면, 밀 가격은 1.35% 하락하며 511.00 달러에 거래되었음. 이처럼 상품 시장은 각기 다른 동향을 보이며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과 경제 조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임.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